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39차	일자	2021.09.20. 18:30	장소	온라인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X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X	○	○	○	○	10/13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9월 28일 교수-학생간담회 예정, 10월5일 2학기 정기 간학대회 진행 예정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10월 6일 사학대회 예정
사회과학대학	축제 종료, 단학대회 9월 30일 진행 예정으로 자료집 제작 및 제반 업무 중
약학대학	불참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대동제 종료
자연과학대학	불참
통일공대	공학대회 10월 11일 월요일로 일정 변경
동아리연합회	특이사항 없음

2 보고안건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위원회
2학기 개강인사 이벤트 상품 발송 예정	문화위 가을 축제 업체 입찰 진행 중
확대운영위원회 진행 및 자료집 관련 준비 중	성평위 운동챌린지(3기) 진행 중, 정혈용품 비대면 이벤트 신청자 모집 중, 학생 대표자 대상 성평등 교육 관련 준비 중
교육자치, 전략정책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전(스터디 중앙대 파이터) 진행 중	인복위 21-2학기 의혈지킴이 규찰대 진행 중, 추석 귀향버스 대체사업 진행 중
연대사업 비건 학식 도입 관련 정책 이행 보고 준비 중	장인위 배리어프리 영화 소개 신청자 모집 진행 중, 학생 대표자 대상 장애인권 교육 관련 준비 중
일상복지 교내 셔틀버스 운영개선 관련 공문 발송 예정	졸준위 졸업앨범 촬영 예정 (9/28~29)
회계사무 학생회비 추가납부 및 환불 진행 중	

총: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사과대 질의있는데 그때 전략정책국에서 전임 교원 확충 문제 관련해서 학교에 공문 보낸 바가 있고 교섭 중이라고 전달받았었는데 혹시 그때 이제 사과대도 추후에 답변을 공유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관련 진행 상황이 있을지 궁금하다.

총: 관련해서 답변을 받은 바는 없고 아마 단위요구안을 답변받을 때 받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혹시나 단위 요구하는 답변을 받을 때 누락됐으면 다시 한번 더 여쭙보도록 하겠다.

사과.정: 네. 알겠다.

3 논의안건

1. 예산자치제 결산 서류 검토 (3차)

- 추가 자료 검토
- 기타 논의

총: 예산 자치제 결산 서류 검토이다. 미 촉구부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서 중운위분들께 공유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자료 참고하시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다. 자료 정독기간 약 3분 갖도록 하겠다. 네 정독 시간에 끝이 났다. 지난번에 지출하신 공구매 비용보다 좀 금액이 상향되었다. 지난번 회의때 공구매 비용을 다 반환하자 라는걸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 대관비의 지출내역이 영수증 증빙서류와 그 금액이 상이하더라는 이유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대관비의 영수증 증빙서류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저도 문서가 많아가지고 일단 저도 대관비 영수증은 문제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지금 띄워주신 결산자료에서 공구매 비용만 빼고 그냥 다 지급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총: 그렇게 된다면 공구매 비용 그러니까 74500원을 저희 지원금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74500원만 반환을 받으면 된다. 만약에 증빙 자료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예술.정: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간호.정: 네 저도 저번 회의 때 대관비의 경우에서 증빙하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대표자들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번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문제없다고 판단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도 해당 의견에 동의한다.

총: 다른 단위의 의견도 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간호대 입장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간호대 입장 동의한다.

사과.정: 사과대도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 동의한다.

총: 네 그러면 공구매 비용인 74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받도록 하겠다. 네 기타의견 있으신지? 없으시면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2. 확대운영위원회 진행 논의

- 현황 보고 : 추후 온라인 비표 시뮬레이션 진행 예정, 자료집 제작 등 제반 준비 시작, 스태프 모집 예정
- 기타 진행 관련 의견 공유
- 기타 논의

총: 현재 총학생회 집행부 내에서는 저번 회의 때 대표자분들이 주신 온라인 비표의 사용 방식에 대해 전반적

으로 긍정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온라인 비표에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료집 제작을 시작을 했고 조만간에 스태프를 모집을 해서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네 혹시 확대운영위원회의 진행 관련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 의견 있다. 단운위에서 나왔던 의견인데 비표 방식을 사용한다면 학운위 전에 배리어프리 필요 조사를 진행하였으면 좋겠다. 카톡을 통해서 사전에 그림 형식의 비표가 전달이 되고 당일에 비표를 거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배리어프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식은 아닐 것 같아서 배리어프리 필요 조사를 선행하고 배리어프리를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린다.

총: 우선 온라인 비표를 사용한 표결 방식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배리어프리한가 라는 것에 대해 국장, 위원장 회의 때 장인위원장님께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배리어프리한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게 실제로 진행을 할 때 그게 잘 지켜지는지는 리허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 네 기타 진행 관련된 의견 없으시면 논의안건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혹시나 회의가 끝이 난 후에도 의견이 있다면 개인 톡으로 남겨주시거나 중운위 대화방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3. 2학기 회칙 및 세칙 개정 논의

- 현황 보고 : 위원회 회칙 관련 위원회 간 논의 선행, 현재 회장단-성평위-장인위 논의체 운영 중
- 단위별 총학생회 회칙 개정 제안 공유
- 단위별 선거시행세칙 개정 제안 공유
- 기타 논의

총: 2학기 회칙 및 세칙 개정 논의인데 현재 위원회회칙 관련해서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와 논의체를 개설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차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이번 주 수요일에 2차 회의가 더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단위별로 총학생회 회칙 개정 관련해서 개정 제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전학대회 때 학과, 학부의 단어를 통일한 바가 있다. 단어가 통일되지 않은 조항이 있었고 선거 시행 세칙에도 적용이 되지 않아 학과, 학부 단어를 통일할 예정이다. 그리고 단과대학 명칭을 통일할 예정이고 집행위원회의 단어도 중앙집행위원회로 단어를 통일할 예정이다. 네 이거 제외하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은 저희 단위가 회의를 통해서 개정 의견을 여러 차례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지?

총: 네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네 저희 단위 개정 의견 드리겠다. 저희 단위 우선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의견 없었고 학생회칙에 대한 개정의견만 있었다. 우선 학생회 측 제1조의 명칭 부분에 지금 중앙대학교 총학생회로 되어 있는 부분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로 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은 중앙대학교의 현재 총학생회가 안성캠과 서울캠 각각 2개이므로 서울캠퍼스에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셨다. 두 번째로는 학생회칙 제3조 휴학생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분에 대한 삭제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단위에서는 휴학을 했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맞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이라 이번 학운위에서 삭제해야한다기보다는 학내 자치단체에서 휴학생의 학생자치 참여권을 점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전달 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회칙 6조와 32조, 39조, 제10장 전체에 대한 의견인데 각 위원회를 총학생회장 산하에 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총학생회 산하로 수정하는 안건 제안 드린다. 여섯 번째로는 제63조 1항에 피선거 자격 중에 4차 학기 이상만 등록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2016년도 11월 선거에서 편입생 학우분께서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오려고 했었으나 학내에서 등록한 학기가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등록한 학기가 4차보다 적어서 선거에 등록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편입생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등록한 기간도 가름하여 보는

방향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일곱 번째로는 제68조 임기 부분인데 현재 68조에 매년 당선년도 12월 1일부터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기 선거의 경우 12월 1일부터, 보궐 선거 및 재선거는 당선 확정 다음 날로부터 수정 제안 드린다. 여덟 번째로는 현재 제80차 81조 2항 총 투표 부분에 앞에 정해진 모든 의결 방식이랑 단체보다 우선시 된다는 명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 중에 학생총투표가 학생총회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내용을 담는 것 같아서 앞에 정해진 모든 의결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부분 삭제할 것을 제안 드린다. 아홉 번째로는 부칙 제3조 중앙감사위원회 부분인데 이 부분 지난 전학대회에서도 의견 드렸던 것 같은데 부칙에 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본 조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열 번째로는 아 11개 있다. 네 열 번째로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관계성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회칙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간의 강제성을 명시한 조항이 부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과대 회칙을 일레로 들자면 사과대 회칙에서는 단과대 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조항에서 운영위원회가 각 집행국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집행부 조항에서는 집행부 조항에서는 집행부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입각하여 학생회 사업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적 집행단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표자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간 관계성이 정확히 명시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특별자치기구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 특별자치기구의 특별회계 조항도 추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제정 의견이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드린 바와 같은데 본회는 특별 자치 기구를 위하여 특별계를 설치한다는 조항으로 특별자치기구가 회계에서의 독립성을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덧붙이자면 2017년까지는 각 위원회의 학생회 중 일정 금액을 분담을 하고 분담금을 자유롭게 특별자치기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제정 의견 드린다. 네 다소 많았음에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많아서 죄송하다. 이상이다.

총: 제가 질의 드려도 되는지?

사과.정: 네

총: 그 위원회가 원래 총학생회장 산하기구인데 총학생회 산하기구라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총학생회가 중앙대학교 본회 회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과.정: 네 그렇다.

총: 그러면 그 산하위원회의 총책임자는 누가 되는지?

사과.정: 아무래도 총학생, 어쨌든 총학생회의 대표가 총학생회장님이기 때문에 총책임자는 총학생회장님이 될 것 같은데 현재의 문제는 총학생회장 개인에게 위원회가 위원회의 권리가 모두 달려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 같아서 총학생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를 대표하는 사람이 총학생회장이기 때문에 총학생회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님이 되실 것 같다.

총: 두 번째로 인복위, 장인위, 성평위는 특별자치기구로 빠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인권복지위원장님이라 얘기를 나눠봤다. 근데 인복위의 설립 목적이 인권을 다루기 위해서 인권복지위원회가 아니라 복지를 담당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게 설립 취지이다. 근데 왜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인권을 다루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냥 관례적으로 인권복지위원회 이름이 인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권 사업을 조금씩 도맡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성평위와 장인위와 인복위와의 그런 인권 관계성은 좀 동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 관련 내용은 현재 지금 책임 중인 인권복지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다. 하여튼 관련해서 논의를 나눠봤었는데 당시에 논의 결과는 이렇다라고 전달해드리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한 가지 말해도 괜찮은지? 인문대학도 사실 인권복지위원회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여러 논의 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문대학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인권복지위원회는 총학생회 인권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로 이해를 했고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

했을 때 이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구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인권복지위원회가 특별자치기구로 가야 할지는 총학생회의 인권복지위원회와 중운위 간의 좀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

총: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권복지위원회가 인권의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특별자치기구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일단 장인위와 성평위의 특별자치기구나 그런 독립적인 지위와 관련해서는 상설 논의체를 지금 개설해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이 되는 대로 중운위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나머지 내용들은 차기 중운위 회의 때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공식적으로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 다른 대표자분들의 개정 제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통공.부: 공대 말씀드려도 되는지?

총: 네

통공.부: 네 공대 단운위에서 나왔던 의견은 두 가지가 총학생회 측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3장 17조 그리고 하나가 4장 26조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 보시면 이제 회의를 진행 그러니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맞고 진행은 부총이 맡는다고 이제 두 조항이 모두 언급이 돼 있는데 이제 총학생회장이 없거나 부총학생회장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자리가 부재일 경우에 의장이나 이 진행은 어떤 사람이 맡아서 하는지에 대한 추가 항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이다.

총: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회칙에 대변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대응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또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통공.부: 공대 학생회장이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부총은 이 부총만 존재하면 부총이 아마 의장을 맡게 될 텐데 그럼 진행하는 사람이 비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나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선거시행세칙에서 10장 63조에 나항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하는 내용을 다뤄야한다고 생각한다.

총: 죄송한데 선거체인세칙 몇 조 몇 항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통공.정: 10장 63조이다.

총: 63조 나항이 삭제되어야 된다?

통공.정: 네

총: 네 알겠다. 다른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총학생회장님 질문이 있는데 오늘은 개정제안을 하고 다음 주 중운위에서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총: 네. 왜냐하면 지금 대표자분들이 주신 의견들에 대해 다른 대표자분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정립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다른 대표자분들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차기 중운위 회의 때 논의를 하려고 한다.

인문.정: 네 그래서 인문대학도 그러면 제안만 드리려고 인문대학은 이게 강력하게 개정이 돼야 한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차원에서 한번 논의는 해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선거시행세칙 제 31조에 보시면 30조와 31조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학생회칙에 보면 회원 자체는 재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출마할 수 있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은 전부 재학생으로 제한이 되어있다. 그래서 회원인데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인문대학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다음에 제 31조 4항에 보면 본 회원으로서 4차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이 조항도 총학생회 선거를 나감에 있어서 사실은 학년이라든지 나이 같은 경우는 큰 제약 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설령 1, 2학년 후보가 나왔을 때도 그거는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지 선거시행세칙에서 제약할 몫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나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제 안드

린다.

총: 나이는 아니고 학년이 제한된 이유는 사실 대통령 선거에도 나이 제한이 있다. 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이 제한을 없애야 되는지?

인문.정: 이거는 각자의 생각차이니까 저희는 제안만 드린 것이고 그냥 다음 중우누이에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다.

총: 저도 말을 아끼고 다음 회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네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 있으신지? 회칙이나 선거 시행 수칙 관계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간호.정: 간호대는 단위 내에서 별도로 개정안 발의된 것은 없다. 오늘 단위별로 나온 개정안 다 모아가지고 자료집 사전에 올려 주시는 건지? 다음 회의 전에?

총: 네. 개정안 초안 작성해서 올려드릴 거고 하나하나씩 의견 받아서 그렇게 논의를 할 예정이다.

경경.정: 경경대 또한 개정안에 대한 추가의견 없다.

총: 네 추가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대표자분들이 주신 의견들 제가 게시글 하나 만들어 드릴 때 한번 올려주실 수 있는지? 그러면 개정안 초안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연휴 때 죄송하고 빠르게 올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또 올리드리도록 하겠다. 네 추가 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4 기타안건

* 상정되지 않은 안건 논의 및 질의응답 진행

1. 전체학생대표자 대상 인권교육(성평등, 장애인권) 14일 목요일 18시~20시

총: 기타 안건은 부총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다.

부총: 진행이랄 건 딱히 없고 전체학생대표자 대상 인권교육을 2학기에는 14일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진행 하고 지난번과 비슷하게 성평등 교육은 내부 인권센터 연구원, 장애인권 교육은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각 단위별 대표자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되겠다.

총: 네 질의 있으신지?

간호.정: 혹시 목요일 3시에 각 단위별 촬영 관련해서 각 단위 상황 좀 여쭙 봐도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부총: 이번 주 목요일 3시 촬영 말씀하시는 것인지?

간호.정: 네 각 단위별 대표자분들께 여쭙보는 것이다.

예술.정: 예술대 참여한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지금 회장단이랑 집부가 지금 아마 거의 못 참여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경경.정: 경경대는 회장단 둘 다 참여하나 깃발이 없어서 깃발은 지참하지 못한다.

인문.정: 근데 혹시 부총학생회장님이랑 총학생회장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단위별 소개 없이 그냥 나와서 깃발만 흔들면 되는 건지 뒤에서? 앞에서 춤 추실 때?

부총: 네 일단 기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깃발이 없는 단위 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 cg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여튼 각 단위를 소개하는 콘텐츠는 아니고 공연 콘텐츠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인문.정: 그럼 그냥 뒷발만 나가서 흔들면 되는 건지? 뒤에서?

부총: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예를 들면 깃발이 없다거나 혹은 깃발의 형태가 일반적인 깃발 모양과

다르다거나 하는 듯 문의가 있는데 내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공지방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겠다.

간호.정: 간호대 추가질의 드리자면 그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바가 없어서 다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내일 주신다는 건지?

부총: 네 내일 드리겠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타임라인을 작성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다.

간호.정: 네 조금 당황스러운 감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상황과 매뉴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부총: 네 알겠다.

사과.정: 사과대는 학생회장단이 깃발 지참해서 혼든다.

사범.정: 사범대학도 학생회장단이 깃발 지참해서 같이 혼들 것 같다.

간호.정: 간호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간호대는 회장 없이 부회장님과 집행위원장이 참석 가능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깃발 지참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생각 중에 있다.

경경.정: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단위는 깃발이 있고 어떤 단위는 깃발이 없는데 그럼 깃발이 없는 단위만 cg처리가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도 뭔가 화면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총: 예 담당자랑 논의하도록 하겠고 깃발을 cg처리하는 게 아니라 단위명을 위에 표기한다거나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 같다.

간호.정: 근데 퍼포먼스적으로 단위별 대표자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깃발 없는 단위도 있는데 깃발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나은 거 아닌지 그냥 네 그냥 개인 사견이다.

부총: 담당자랑 논의해서 내일 공유 드리도록 하겠다.

총: 네 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축제 계정에 많은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운위를 통해서 각 학과 학부 카카오톡 공지 방에 공유를 요청 드리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겠다. 모든 총학생회 회원분들이 즐기시는 축제이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단위는 이제 접하고 어떤 단위는 접하지 않게 된다면 그런 단위별에 따라서 그런 참가권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다. 제3자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의견 없으시면 폐회하도록 하겠다. 추석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자치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 모든 대표자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중운위 39차 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제가 게시글 하나 만들어드릴 테니까 회칙 및 세칙의 개정안 내용은 좀 올려주시기 바란다. 다음 주 회의 때 뵙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